

<우수작> MBC <!느낌표>2 를 말한다

오미환

돌아온 <!느낌표>2

우리 사회에서 방송프로그램이 기능하는 측면은 다양하다. 방송프로그램의 주요한 기능으로는 오락적인 기능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이것은 방송프로그램에서 '재미'와 '의미'라는 두가지 가치가 균형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재미를 주는 연예/오락 프로그램과 의미/정보를 제공하는 교양 프로그램의 구분이 명확했다. 반면 이제는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자처하고 나서는 프로그램의 공급이 많아지고 있다. 하나의 정보라도 진지하게 혹은 무거운 마음으로 얻는 것보다 쉽고 재미있게 얻고자 하는 시청자들의 수요에 응하다보니 그러한 형식을 표방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현실이다.

시청자들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무늬만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을 하고 오락적 기능에만 충실한 연성화된 프로그램이 나타나는 등 재미와 의미가 균형있게 담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나는 일도 쉽지만은 않다.

방송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의미를 남기면서 재미를 더해주는 친절까지 베풀어서 주목 받았던 프로그램은 단연 MBC의 <!느낌표>1 이었다. 많은 시청자의 이목을 끌며 아쉬움 속에 방송 3년만인 2004년에 종방한 <!느낌표>1에 이어 7개월 후인 지난 12월부터는 새롭게 단장한 <!느낌표>2가 전파를 타고 있다. 대대적인 흥행을 이끌었던 지난 <!느낌표>1과 새로운 꼭지와 접근으로 구성된 <!느낌표>2는 분명 많은 부분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작과 비교해 새롭게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느낌표>2가 주고 있는 느낌표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더불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고민하고자 한다.

<!느낌표>2 의 자기 벤치마킹과 자생의 생존전략

방송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킨다. <!느낌표>1의 기치는 후편인 <!느낌표>2에서도 변함없는 주체의식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난 전편의 대대적인 성공과 반향은 <!느낌표>2의 꼭지선정에도 확신을 선물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방송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제작진의 기획의도는 <!느낌표>2에서도 튼튼한 뿌리가 되주었다. 그것은 새롭게 시청자들에게 선보이는 여러 꼭지들이 전편과 같은 맥락속에서 이해되고 기능하도록 만드는 손쉬운 접근 방법이기도 했다. 이미 성공을 확인한 형식과 문제의식의 표출은 또 한 번 활용해주기에도 여러면으로 안전하기 때문이다. <!느낌표>2는 <!느낌표>1의 여러 가지의 성공요인을 잘 활용해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을 벤치마킹해서 태어난 프로그램임에 분명하다. 물론 <!느낌표>2가 전편과 같이 방송프로그램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지만 새로 선보이는 꼭지들의 내용은 물론이고 시청자들과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상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느낌표>2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전편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운동이 운명을 바꾼다>, <하자, 하자> 등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친숙한 코너들의 중심은 전국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느낌표>를 시청하고나서 누구나 선정도서를 선택해 읽을 수 있었으며 이른 새벽에 줄넘기를 벗삼아 아침운동을 즐기는 것이 가능한 일상의 주제가 많았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는 동기 부여를 끊임없이 줌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직접 내용에 참여하고 규칙적으로 '실천'하게 만들도록 했다. 반면 <!느낌표>2가 담아내고 있는 중심의 사람들은 시각장애자, 국내 혼혈아, 북쪽에 고향을 둔 실향민으로 우리 사회의 소수자, 약자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편에서 보여졌던 시청자들의 실천 의지는 2편에서는 해석과 '이해와 공감'이라는 다른 이름의 반응을 요구한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참여자의 역할에서 지켜봐주고 감동하고 격려해주는 관찰자로서의 역할로 달라졌다.

전국민에서 사회적 소수자로 대상의 폭은 대폭 좁아졌다. 이러한 설정은 내용의 깊이와 프로그램의 무게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장기기증과, 통일, 국내의 인종차별 문제는 전편의 독서나 운동 등의 주제와 비교할 때 현저히 무거워졌으며 전문성마저 요구되는 주제들이다. <!느낌표>2의 대상의 집중과

주제의식의 심화는 의지만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고 내 이웃도 할 수 있는 전편의 꼭지들이 안겨주었던 일상적 친근함을 과감히 포기하고 이질적인 낯 설음을 선택했다. 낯설음은 쉽게 신기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와 너와 우리의 절대적인 관심과 호응을 쉽게 얻기는 어려운 법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더욱 크고 무거워진 반면 대중적 호응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전편의 그것의 수준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느낌표>2의 모험을 감행한 전략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생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박수받을 만 하다. 전작이 주었던 달콤함에서 안주하지 않으며 새로운 주제의 발굴과 시도는 마땅히 스스로 자기발전을 해야하는 우리 방송프로그램에 장기적인 귀감이 되어줄 것임을 확신한다.

<!느낌표>2의 테마 '사랑, 생명, 민족'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현재 <!느낌표>2는 <집으로>, <눈을 떠요!>, <통일 료리관>이렇게 3개의 코너로 이루어져있다. 각각은 사랑, 생명, 민족이라는 보편적이고도 중요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국내 혼혈아 손자와 외국의 외조부와의 만남을 다루는 <집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외국인과 혼혈아에 대한 편견과 무시를 조명하고 그들의 아픔과 설움을 함께 나누는 코너로 전편 <아시아, 아시아>의 3번째 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사랑이라는 따뜻한 감정을 나와 내 이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 3세계 국가의 외국인과 혼혈아, 떠나면 나라에 살고 있는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전해 주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코너이다. 이주노동자, 고려인을 대상으로한 <아시아, 아시아>의 1,2편과 비교해볼 때 이번 <집으로>는 더욱 '우리'안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감싸안으려는 기획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단지 전개의 주요인물인 이땅의 많은 혼혈아들에게 우리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어렸을 때 한 번은 경험해 보았음직한 외조부님에 대한 향수를 지닌 시청자들에게 피부색이 우리와 다른 모습의 그들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리움이 있으며 눈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다. 한 개

인의 가족애가 세계를 아우르는 인류애로 확장되는 순간이다.

“애들이 더럽다고 놀려요”, “얼굴이 하얘졌으면 좋겠어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어린 혼혈아동의 모습은 우리가 나와 다른 이질적인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차갑고 잔인한 것인지를 대변해준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직 우리에게서 그들의 상처에 또 한 번의 상처를 내서 우리 두 눈으로, 두 귀로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열쩨 수 없는 가혹함을 행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물론 우리 안에 다른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어렵기 때문에 <집으로>가 우리 마음속에 남기는 파문들이 더욱 의미있는 것이겠다.

편안한 외모에 구수한 말솥씨가 일품인 김제동이 진행하는 코너인 <눈을 떠요>는 생명의 존귀함과 생명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눈을 떠요>는 시각 장애인이 30만 명에 육박하지만 이중 1% 미만이 각막 이식 수술을 받는 현실에서, 어려운 형편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무료 개안 수술을 해주고 각막을 구하는 과정에서부터 수술과정, 개안, 회복과정에 이르기까지, 긴박한 실제 상황을 리얼하고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각막 이식 수술 으로 웃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다.

이 코너가 방영된 후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 곳곳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거부감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각막 기증을 약속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만은 분명하다. 실제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수 많은 정, 재계 인사 및 연예인들이 각막 기증서약을 했고, 눈을 뜨는 그 현장의 감동으로 장기, 각막 기증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등 다른 코너에 비해 상대적으로 1기 못지않은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각 장애인들에게 각막을 기증함으로써 새 희망과 새 빛을 주는 코너 <눈을 떠요>는 각막, 장기 기증 문화의 활성화라는 코너 자체의 큰 의미와 김제동, 방영 초의 진행자였던 god의 재치있는 진행으로 현 MBC 예능 국장인 김영희 PD의 능력을 새삼 확인시켰을 뿐 아니라 공익적 예능 프로그램 왕국 MBC의 위상을 재확인 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일 료리관> 코너는 <남북어린이알아맞추기 경연>와 <남북청년

알아맞추기 경연>를 거쳐 3번째로 선보이는 통일을 주제로 하고 있는 코너이다. “남북관계”라는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을 끌고 와서 그것을 재밋게 풀어내는 신선함이 돋보인다. 남북 관계는 단순하지만은 않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등장시켜 남북 관계의 경직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곳곳에서 엿보이기도 했다. 또한 첨단 방송 기술을 도입해 남과 북 어린이들의 실제 퀴즈대회를 보는 듯하다. 퀴즈 중간 중간에 소개되는 북한 어린이의 김정일을 찬양하는 모습이 여전히 부담스럽긴했어도 코너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과의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라나는 어린이 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일깨운다는 측면에서 <알아맞추기 남북 어린이, 청소년 경연>은 새로운 카타르시스를 제공했다. 한 민족, 통일이라는 가볍지 않은 주제를 아이들과 함께 퀴즈풀이로 가볍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점은 참신한 접근이었다. 이것의 연장선상에 놓인 <통일 요리관>에서는 퀴즈 형식이 기능했던 역할을 북한의 음식에서 기대하고 있다. 일상적 소재인 먹는 음식을 통해 북녘에 고향을 둔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눈물을 보며 우리는 지금 현재도 갈라져 남과 북으로 나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상기하게 된다. 분단된지 50여년이 지났고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날 수록 젊은 세대들에게 남과 북이 한 민족이라는 큰 울타리와 통일에 대한 염원은 퇴색, 변색되어 갈지도 모른다. 이미 이 땅의 많은 청년들에게는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부재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통일 요리관>은 민족을, 통일을 무조건 주입하지는 않는다.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최선이고 <통일 요리관>의 남은 의무이겠다.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사랑, 생명, 민족이라는 세가지 굵직굵직한 주제가 들어있다. 나의 몸이 소중하듯 당신의 생명 또한 값진 것임을 알았고, 우리 민족의 현실이 보듬어져야 할 역사적 사실이듯 나와 조금 다를 뿐인 또 다른 우리를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도 배운다. 이렇듯 <!느낌표>2는 프로의 중심에 인간에 대한 사랑을 두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그들과 교감하고 있다. 이로써 얻어지는 <!느낌표>만의 브랜드 이미지는 시청률과는 별개로 전편에 이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느낌표, 끊임없이 물음표와 소통하라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던 <!느낌표>의 제작진들은 일단은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충실히 노력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여전

히 <!느낌표>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시청자의 한사람으로 몇가지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느낌표>2는 토요일 밤에 전파를 탄다. 일주일간의 피로를 풀기위해 혹은 여가를 즐기기위해 텔레비전을 켜는 시청자들에게 <!느낌표>2의 주제는 주말저녁에 자칫 상당히 무거운 이야기거리로 느껴질 수 있는 위험이있다. 오락프로그램에 공익적 문제의식을 불어넣고자 했던 것이 처음의 의지였기에 '재미'에 대한 고민에서도 언제나 자유롭지 않아야 할 것이다. 눈이 아픈 사람들, 고향을 잃은 사람들, 생김새가 달라 차별 받는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이 오락프로그램의 소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민과 상처는 호기심에 군림하는 웃음의 대상이 아니라 건강한 웃음으로 치유받아야 할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느낌표>2가 경계해야 할 두 번째는 '눈물'의 남발로 인한 감정에의 호소이다. 시청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손자와 조부모가 눈물 짓는 모습을 보며 울고 수술을 받고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얼싸안고 눈물 흘리는 모습에 또 울고 어르신들의 오랜이야기들을 들으며 눈시울을 적신다. 시청하는 동안 울고 울고 또 운다.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 방법은 눈물로 가득한 화면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코너의 사연들이 안타깝고 그것을 풀여가는 과정이 감동적이기는 하지만 눈물만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은 오랜시간을 반복해서 두고보면 무덤덤한 그것으로 전략하고 말수도 있기 때문이다. <눈을 떠요>에서 보여주는 과도한 자막과 유독 수술 전 긴급해지는 나레이션은 시청자들의 감정을 호도하고 강요할 뿐이다. 감동은 말로, 눈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진실함을 지닐 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그렇게 과도하게 강조하고 이끌지 않아도 시청자들은 이해하고 느끼며 감동할 줄 안다. 감동은 강요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물드는 것이어야 한다.

<!느낌표>2가 항상 고심해야할 세 번째는 시청자들에 대한 애정이다. 어느 프로그램인들 시청자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겠냐만은 <!느낌표>가 시청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의미있는 웃음인만큼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방송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처음의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시청자들은 방송에 나왔던 그들의 뒷이야기들도 궁금하고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주제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갖는지도 알고 싶어한다. 방송프로그램에서도 애프터서비스는 필요하다.

<!느낌표>1이 공익적 오락프로그램으로 성공을 거둔 후 그와 비슷하게 시청자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의 수가 많아졌다. 그로인해 <!느낌표>만의 차별성은 반감되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느낌표>2의 색깔찾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인간과 세상과 소통하며 새로운 물음표로 시작해 가슴 울리는 또 하나의 느낌표를 만들어 낼 때까지.